전남 육상, 금 3·은 5·동 4개 '값진 결실'

남자부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김장우(왼쪽에서 세번째).

여자부 해머던지기 금메달을 차지한 박서진(왼쪽에서 세번째). 〈전남도 체육회 제공〉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1위

목포시청 박서진 해머던지기·광양시청 이아영 400m 우승

전남 소속 육상팀 선수들이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모두 12개 메달을 따냈다.

18일 전남도육상연맹(회장 김용주)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남 육상 실업팀이 금메달 3, 은메달 5, 동메달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장흥군청 김장우는 남자부 세단뛰기 3차 시기에서 16.50m를 뛰어 금메달을 확보하고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6차 시기에는 16.73m를 뛰며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하며 남수환(제주시청, 15.53m)과 김동한(안동시청, 15.49m)를 압도, 1위에 올랐다.

목포시청 박서진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57m57을 던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아영(광양시청)은 400m에서 56.6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값진 은메달도 잇따랐다. 김진(목포시청)은 남자부 해머던지기에서 61.26m로 은메달, 여수시청 김은미도 여자부 10000m에서 36분17.45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수시청 김은정은 여자부 높이뛰기에서 1m60으로 은메달, 목포시청 정소은은 여자부 포환던지기에서 15m09로 은메달, 장흥군청 권수아(30)는 여자부 해머던지기에서 54m42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시청 이승호는 남자부 10종경기에서 3,297점으로 동메달, 나주시청 김동욱은 남자부 800m에서 1분 53.00으로 동메달, 여수시청 김은미는 여자부 5000m 동메달을 따냈다.

해남군청 박기란·신미란·김현진·이규림은 여자부 4x800mR에서 10분04.09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 KBL, 회원 자격 박탈

임금체불 등 재정 문제 해결 못해

프로농구 KBL이 선수단 임금 체불 등 재정난에 시달린 고양 데이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KBL은 지난 16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5일까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이날 KBL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구단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L 정관 제12조에는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75% 이상 찬성으로 문제의 팀을 제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결정으로 2023-2024시즌을 앞둔 KBL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곧바로 9개 구단 체제로 2023-2024시즌을 준비할 가능성, 또는 KBL과 다른 9개 구단이 10개 구단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시나리오 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선수들 힘내세요"

전남도체육회, 소년체전 출전한 39명 초청 격려금·물품 전달

전남도체육회가 다문화가정 선수들의 후원자로 나섰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지난 15일 목포시 인근 식당에서 제52회 소년체전에 출전한 다문화가정 선수 39명을 초청해 식사를 하고 격려금, 격려물품 등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송 회장, 양기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다문화가정 선수들을 격려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전남 선수들은 이번 체전에서 맹활약해 눈길을 모았다.

서예지(광양백운중 3년)는 육상필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따냈다. 김태양(완도중 2년)은 역도 73kg급 인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도체육회는 이들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격려금과 격려물품인 스마트워치를 전달하고 선수들의 꿈을 응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소년체전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남도체육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양군은 "더 열심히 운동해 전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체조 여서정, 아시아선수권 도마 '2연패'

한국 기계체조의 간판 여서정(제천시청)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종목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여서정은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OCBC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317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성인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지난해에 이어 여자 도마 부문 정상을 지켰다. 올해 대회에서는 여자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입상이다.

이번 대회 도마 예선에서 13.683점을 얻어 전체 1위로 결선에 오른 여서정은 결선에선 1차 시기 14.433점, 2차 시기 14.200점을 기록했다.

여서정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앞서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고 좋은 결과로 자신감을 얻게 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서 얻은 성과와 보완점을 토대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8회 연속 올림픽 출전 기록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의 47세 베테랑 옥사나 추소비티나는 결선 점수 13.517점으로 여서정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서정(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OCBC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317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여자 이단평행봉에서는 이윤서(경북도청)가 14.200점을 기록, 추치위안(중국·14.333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약팀 크로아티아에도 0-3 패

네이션스리그 7연패

한국 여자배구가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에서 약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첫 승을 따내지 못했다.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닐슨 넬슨 아레나에서 열린 2주 차 세 번째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에 세트 점수 0-3(23-25 21-25 14-25)으로 졌다.

크로아티아는 1승 제물로 꼽힌 상대적 약팀이었지만, 오히려 대표팀이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한국의 세계 랭킹은 27위, 크로아티아는 30위다. 이 경기 전까지 두 팀 모두 승리가 없었다.

지난해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유일하게 이긴 상대도 크로아티아였다.

그러나 이날 크로아티아에 무릎을 꿇어 이번 대회에서 승리가 없는 팀은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대회 7연패째로, 지난해 대회를 포함하면 19연패다.

미들 블로커 정호영(KGC인삼공사)이 가장 많은 10득점을 올렸고 아웃사이드 히터 표승주(IBK기업은행)가 9득점으로 힘을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표팀은 19일 오전 독일전을 끝으로 2주 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수원의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불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폴란드와 예선 3주 차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플래시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인어공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4관	플래시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9관	엘리멘탈, 플래시
7관씨네커플	범죄도시3
8관씨네커플	범죄도시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3-06-01(목) ~ 2023-06-30(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희망아트페스티벌 :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일시 : 2023-06-15(목) ~ 2023-07-0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